한국일본교육학연구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2009. Vol. 14, No. 2, pp. 39~59

한국 중·고생의 규범의식의 특징과 한·일 상호이해 교육의 과제

우마이 마사유키 · 이명희[1]
(시즈오카대학교 · 공주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 중·고생의 규범의식과 일본 중·고생에게 나타나는 규범의식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중·고생 2,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변량 해석 기법(대응일치분석)을 활용하여 2종류의 축(Ⅰ축과 Ⅱ축)과 경향이 유사한 9개 그룹을 구분하여 규범의식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 중고생의 규범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해석모델이 '일본 중·고생과 동일시한다'는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집단토론 및 청취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규범의식에 대한 결과를 재해석하였다.

심층조사는 ⅰ) 한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9개의 전형적인 그룹을 재해석하기 위해, ⅱ) 한국 대학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개의 축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 ⅲ) 교원과 연구자 대상으로 ⅰ)과 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시행되었다. ⅰ)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각 9개 그룹에 대한 특징을 얼굴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재해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를 막는 규범의식은 ⅱ)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서로 간 가장 큰 개념차이를 나타내는 말은 '예절'과 '우리'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ⅲ)의 조사와 분석에서는 한·일 양국의 뿌리 깊은 혐한(嫌韓) · 혐일(嫌日) 감정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비롯된 '오해의 구조'임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유사성과 이질성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규범의식, 상호이해 교육, 다변량 해석, 대응일치분석, 심층조사

1) 교신저자 : 이명희, mhlee@kongju.ac.kr

Ⅰ. 서론.

우리는 1995년도부터 3기의 10년간에 걸쳐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보조금(책임자 : 우마이 마사유키)을 얻어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정하에, 한국청소년의 일본과 일본문화에 대한 접촉상황과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발표해 왔다(우마이 마사유키, 2001).

-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청소년문화를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에 기인하는 상극을 넘는 '공감대(共感帯)'혹은 '교감(交感)'이 양국 청소년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 한국 청소년이 일본문화를 요구하는 배경으로는 일본과 같이 한국도 정보의 글로벌화와 소비 사회화가 진행되고 혹은 저출산 고령의 인구감소 사회로 이행하는 등, 공업화로부터 정보화 단계로 이행한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갖는 생활 구조의 변화가 존재하고, 그 결과 이것들의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의 공유화도 한·일 양국 청소년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 격변의 현대사회가 만들어 내는 문화와 문제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 청소년들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과제다.

그리고 10년에 걸친 본 조사연구의 총괄로서 상기의 3가지 가설을 구체화하는 실천 방법을 모색하여 한·일양국의 상호이해 교육 추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하였다(馬居政幸・李明熙その他, 2006).

-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IT화의 진행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실증 연구와 상호이해 촉진을 위한 미디어 소양(media literacy) 육성 및 정보 사이트를 증설하는 일이 급선무다.
- 문화의 글로벌화에 따라 파생되는 상호 인식과 평가의 차이(오해)에 관한 실증 연구를 촉진하는 동시에, 양국의 문화를 서로 함께 소유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 세대 간이나 2개국 간의 대립을 넘는 아시아적 시티즌십(citizenship)이라고도 해야 할 공유 가능한 가치와 행동양식의 구축을 위한 도전과 그로 인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기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조사가 종료하는 2005년도에 급격하게 고양된 일본 비판 분위기에 부딪혀 조사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나타난 일본 비판의 재생산 과정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再定義) 하였다(馬居政幸, 2005).

- 일본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일본에 대한 의식은, '긍정'과 '부정'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다' (중간파)이라는 3종류의 층이 경쟁 상태에 있다. 게다가 이 3종류의 층은 한국인이 3종류로 나눠진다고 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마음속에 3종류의 층이 잠재한다고 간주해야 한다.
- 그 결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일본에 대한 긍정 의식, 악화되면 일본에 대한 부정 의식이 현재화한다. 특히 영토나 역사 문제 등, 한국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간파가 비판파에 가해져 일본에 대한 비판 의식과 행동이 다수파가 된다.
- 이러한 경향을 조사 시작 단계인 90년대보다도 심하게 증폭시키고, 한・일 간 상호이해를 막는 새로운 벽으로 될 가능성을 가진 사회장치가 IMF위기 이후 급격하게 보급된 인터넷이다.

한·일 양국간의 관계 혹은 교류를 논의함에 있어 역사 인식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과거 역사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작업과정에서 필자들이 중시한 것은 현재와 미래이다. 왜냐하면 서로를 대등하게 생각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자라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의 2가지 이유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무대에서 생기는 대경쟁 시대를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이다.

둘째는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율 상승을 대표로 급격한 공업화와 정보화에 수반하는 사회시스템의 변동이 초래하는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서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함께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이다.

경쟁자인 한편, 서로 지지하는 것도 요구되는 한·일 양국 청소년이 공유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문제 혹은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1995년에서 2004년까지 10년 조사연구를 토대로 한국 중・고생과 일본 중・고생의 규범의식 구조를 비교한 것으로써, 앞서 언급한 내용을 한국 중·고생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내재적인 이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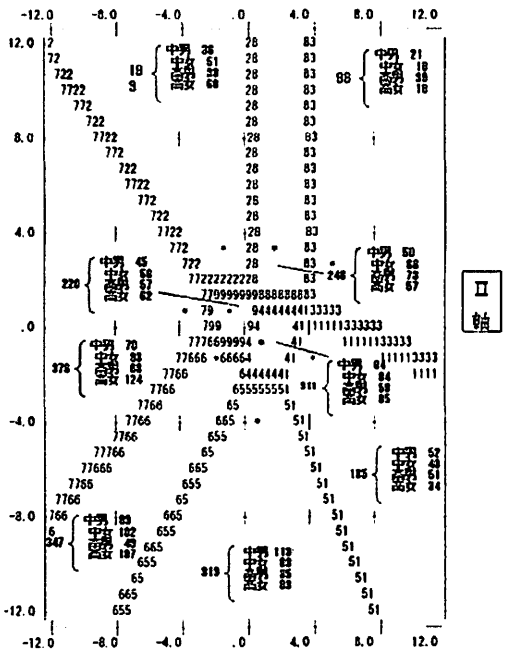
연구대상은 설문조사와 심층조사에 참여한 그룹으로 구분된다. 설문조사는 서울, 부산, 대전의 중학교 2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 2,905명(다변량해석이 가능한 유효회답자수는 2,293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에 실시하였다. 심층조사는 집단토론과 청취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이 한국 중·고생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의 해석모델이 일본 중·고생이고 해석자의 해석과정에서 생기는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회 실시하였다. 제1회(2007년 5월 23일~29일)에는 대전과 부산의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2007년 9월 6일~11일)는 서울시내의 일본으로부터 귀국자녀(대학생)를 둔 일본연구자와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심층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 국회의원과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만화의 번역·출판·편집을 하였고 현재는 한국 만화의 일본 출판을 진척시키는 출판사사장,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의 교육 개혁에 도전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2008년 9월에 청취조사를 실시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의 최초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분석과정 중에 한·일간(조사자와 조사자 대상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일본 중·고생의 규범의식 구조와 비교하기 위해 2001년 일본 중·고생의 규범의식 특징을 제시한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본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규범의식에 관한 18개 쌍의 비교, 즉 36개 설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변량 해석(SPSS, 대응일치분석 :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에 의해 규범의식의 큰 틀을 결정짓는 2개의 축을 석출하고, 그 축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복수의 그룹(cluster)으로 분류(그룹 분석+판별 분석)하여 특징을 읽어내는 조사·통계방법이다(馬居政幸 他, 2003).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에 의거하여 우선 한국 중·고생 규범의식의 구조를 찾아내기 위해 2종류의 축을 석출하였다. 그 다음 축의 특징을 읽어내기 위해, 즉 석출을 위한 수량화에 의해 주어진 득점에 따라 36개의 설문을 나열하였다. 그

리고 석출된 2개의 축으로 이차원 그래프를 작성하고, 그 평면상에 36개 설문에서 주어지는 득점을 구획(plot)화 하였다. 그 공간 위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수량화로 얻을 수 있는 대상(2,305명)의 득점(각 설문의 회답에 근거하는 각 샘플마다 수량화에 의해, 36개 설문의 수량화와 똑같이 Ⅰ축, Ⅱ축에 대한 득점이 2,305명 샘플에 각각 주어짐)을 이용하여, 회답 경향의 유사성으로 조사 대상의 그룹(cluster) 분석을 행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최소 그룹이 100명 이상 되는 9개의 그룹을 선택했다([그림 1] 참조). 분석은 2가지 축의 특징을 읽어내는 작업과 9개 그룹의 특징을 다른 조사항목과의 교차 총계 결과로 읽어내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그림 1] 규범의식에 관한 그룹분석(9개의 그룹)

마지막 단계에서는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해석한 한국 중·고생의 특징을 검증하고 해석과정에서 오는 편견과 조사자와 조사자 대상의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새로운 조사방법을 고안하였다.

i) 한국 중·고생 대상 일본인이 그림으로 제시한 9개 그룹의 전형상을 재해석하기 위한 청취조사
ii) 한국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2개 축의 성격을 재해석하기 위한 청취조사
iii) 교원과 연구자 대상으로 위 청취조사 결과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청취조사

Ⅲ. 연구결과

1. 해석과정의 편견과 오해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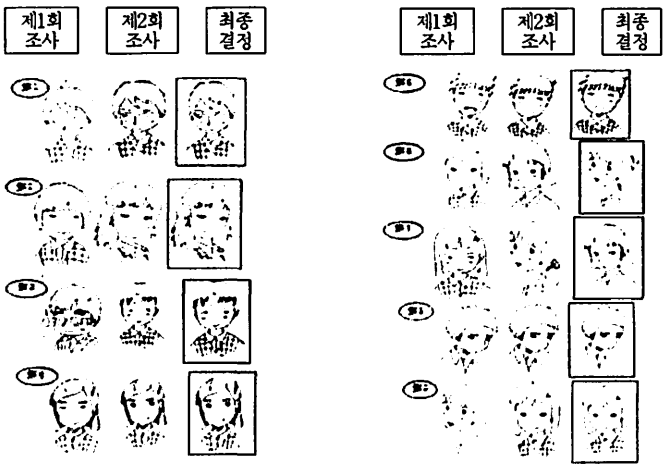
청취조사 방법 중에서 'i) 한국 중·고생 대상의 재해석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였다.

- 일본측의 해석에 근거하여 각 그룹 단위로 상반신 일러스트를 그림으로 표현.
- 한국 중·고생에게 데이터상의 특징으로부터 상상되는 이미지상과 일본측이 작성한 일러스트간의 차이에 관한 청취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상반신 일러스트를 수정.
- 수정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동일한 한국 중·고생에게 다시 청취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그룹의 특징을 재음미하고, 9가지 상반신 일러스트 재수정판 표현.

이 조사과정에서 각 그룹의 특징에 근거하여 작성한 일러스트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처음 일본측에서 작성한 일러스트가 좌단, 한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이미지 상에 대한 청취조사를 하여 수정한 그림이 중앙, 두 번째의 청취조사 후 재수정하여 확정한 최종 수정 일러스트가 오른쪽 끝이다. 일본측 해석 일러스트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제8 그룹뿐이다. 비교적 수정도가 낮은 것이 제1, 제4, 제5 그룹이며, 한국과 일본에서 말이나 수치상의 이해는 공유할 수 있어도 그 표현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러스트가 크게 변화된 것이 제3, 제6, 제7, 제9 그룹이며, 말이나 수치만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대상을 이미지 하는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가 비록 같더라도 읽는 주체에 따라 의미나 구체상이 크게 다른 가능성을 가리키는 조사결과다.

아래 9가지 일러스트의 최종 수정판 옆에 청취조사 조사대상의 한국 중·고생에게 제공한 각 그룹의 특징을 나타내는 설명 문장을 제시하여 일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표 1>이다. 해석자의 차이에 따른 편견은 한·일간 뿐만 아니라, 한국내의 세대간에서도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한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재해석 조사를 행함으로써 그룹의 특징에 대한 해석에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편견을 드러내고 또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과제는 그룹 석출을 위해 사용한 2개축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림 2] 9개 그룹의 재조사를 통한 얼굴 일러스트 조정

<표 1>에서 제시된 '예절, 도덕규범을 지킨다-지키지 않는다', '자신의 형편을 우선한다-친구의 형편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척도는 먼저 나타낸 'ii) 한국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2개축의 재해석을 위한 청취 조사'에 의해 확정한 축의 해석이다. 전자가 Ⅰ축, 후자가 Ⅱ축이지만, 일본의 조사에서는 Ⅰ축을 '기존규범 동조-일탈', Ⅱ축을 '자기지향-관계지향'이라고 명명했었다. 이렇게 축의 명칭에 대한 변경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규범의식의 상위점을 밝힐 수 있었다.

<표 1> 9개 그룹의 특징에 대한 해석

그룹	일러스트	내용
제1그룹		· 예절, 도덕규범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다소 남학생이 많다.
제2그룹		· 예절, 도덕규범을 일탈하면서 자신보다 친구의 형편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여학생이 많다.
제3그룹		· 예절, 도덕규범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다소 남성이 많고 가장 적은 96명이 속해 있다.
제4그룹		· 2개축의 교점이며, 중 남학생 84명, 중 여학생 84명, 고 남학생 58명, 고 여학생 85명, 13.6%.
제5그룹		· 예절, 도덕규범을 존중하고, 중학교 남학생이 많다.
제6그룹		· 예절, 도덕규범을 존중하고, 친구의 형편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여학생이 많다.
제7그룹		· 예절, 도덕규범을 존중하는 사람도 있고 일탈하는 사람도 있으며, 친구의 형편을 우선하는데 고교생이 많다. 중 남학생 70명, 중 여학생 96명, 고 남학생 86명, 고 여학생 124명, 16.4%.
제8그룹		· 예절, 도덕 규범을 일탈하는 형으로서 고교 남학생이 많다.
제9그룹		· 2개축의 교점, 중 남학생 45명, 중 여학생 56명, 고 남학생 57명, 고 여학생 62명, 9.6%.

2. 상호이해를 막는 규범의식의 상위점

가. 한국 중·고생과 일본 중·고생의 2개축의 비교

축의 성격은 36개 설문에 주어진 득점 순위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중·고생의 Ⅰ축 경우를 소개하면, 득점 상위에 다음과 같은 설문이 나열된다(馬居政幸 他, 2003).

· 수업 중 친구가 말을 걸어 왔을 때 수업 중에 주의를 준다.
· 전철을 타고 있는데 휴대폰이 걸려 왔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다.
· 친구가 자전거를 두 사람이 타고 싶다고 말해 왔을 때 거부하다.
· 친구에게서 받은 노트가 몰래 훔친 것임을 알았을 때 사용하지 않는다.
· 밤 늦게 친구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왔었을 때 거절한다.

또한 득점 순위 하위에는 다음과 같은 설문이 나열된다.

· 전철에서 친구가 밑바닥에 앉았을 때 함께 밑바닥에 앉는다.
· 친구에게서 받은 노트가 몰래 훔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용한다.
· 막 산 참고서를 잃어버렸을 때 그만 포기하고 다시 산다.
· 전철에서 지쳐서 앉아 있는데 노인이 다가왔을 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 전철을 타고 있는데 휴대폰이 걸려 왔을 때 전화를 받는다.

득점 순위 상위의 설문은 현재 일본의 사회규범을 기준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이며, 득점 순위 하위의 설문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 행위다. 따라서 Ⅰ축은 현재 일본사회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규범(상식)을 따른다(동조), 또는 따르지 않는다(일탈)로 구분되며, 이것을 '기존규범 동조 - 기존규범 일탈'의 축이라고 명명하였다. 한국 중·고생의 Ⅰ축 득점 순위 상위설문은 다음과 같다.

· 친구에게서 받은 볼펜(ball-pen)이 훔친 것이라고 알았을 때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수업 중 친구가 말을 걸어 왔을 때 "수업중이야"라고 주의한다.
· 영화관 매표소에서 친구가 새치기를 할 때 자신은 하지 않는다.
· 보충수업이나 학원수업을 땡땡이치자고 친구가 유혹을 했을 때 거절한다.
· 전날에 학교 갈 준비를 한다.

위의 설문들은 일본 중·고생의 조사에서 찾아낸 '기존 규범'에 대한 '동조'를 한국 중·고생의 조사에 응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득점 순위 하위설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규범의식 구조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 길에서 근처의 사람을 보았을 때 인사를 하지 않은 적이 많다.
- 전철에서 지쳐 앉아 있는데 노인이 다가왔을 때 그대로 앉아 있는다.
- 친구에게 자신의 단점을 지적되었을 때 '애기해주지 않아도 잘 알아!' 라고 생각한다.
- 친구는 시험에서 100 점을 얻었고, 자신도 떨어지지 않았을 때 져버려서 분하다고 생각한다.
- 보충수업이나 학원수업을 땡땡이치자고 친구가 유혹할 때 함께 땡땡이를 친다.

축에 대한 영향도가 높은 '근처 사람에게 인사'이나 '친구로부터 단점 지적', '친구는 100점을 맞았다' 등은 일본에서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만큼 강하지 않고 때와 경우 그리고 상대에 따라 변하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간주된다. 또한 상위와 하위 설문, 어느 경우의 설문도 일본 중·고생의 Ⅰ축 상에서는 축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있다. 이것은 한국 중·고생의 Ⅰ축을 '기존규범 일탈'의 척도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Ⅱ축의 경우이다. Ⅰ축과 같이 일본 시즈오카(静岡) 조사의 득점 순위를 확인하면 상위설문은 다음과 같다.

- 친구가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편들지 않는다.
- 길에서 근처의 사람을 보았을 때 인사하지 않는다.
- 친구가 '자전거에 두 사람이 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거부한다.

또한 득점 하위에는 다음과 같은 설문들이 오른다.

- 버려진 개를 찾았을 때 돌보아 준다.
- 전철에서 지쳐 앉아 있는 터에 노인이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한다.
- 밤늦게 친구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만나러 간다.

이상과 같이 Ⅱ축에 강한 영향을 주는 설문은 모두 사람이나 동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택을 묻는 것이다. 상위는 자신의 형편을 우선하는 것이고 하위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선택의 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관계지향 - 자기지향'의 축이라고 명명했다. 한국의 경우 Ⅱ축의 득점 순위 상위설문은 다음과 같다.

- 길에서 근처의 사람을 보았을 때 인사를 하지 않는 적이 많다.
- 전철에서 지쳐 앉아 있는 터에 노인이 탓을 때 그대로 앉아 있다.
- 밤늦게 친구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거절한다.
- 친구가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싫기 때문에, 친구와의 교제를 그만둔다.
- 친구는 시험에서 100 점을 받았고 자신은 떨어지지 않았을 때도 져버려서 분하다고 생각한다.

득점 순위 하위에 해당하는 설문은 다음과 같다.

- 보충수업이나 학원의 수업을 '땡땡이' 치자고 친구가 유혹할 때 함께 '땡땡이'를 친다.
- 밤늦게 친구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만나러 간다.
- 영화관의 매표소에서 친구가 새치기를 할 때 함께 새치기를 한다.
- 수업 중에 친구가 말을 걸어 왔을 때 함께 이야기를 한다.
- 친구에게서 받은 볼펜(ball-pen)이 훔친 것이라고 알았을 때 그대로 사용한다.

위의 두 설문들은 모두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근처의 사람, 인사하지 않는다', '노인, 앉아 있다'를 제외하면 모두 상대는 친구다. 한국과 일본 중·고생의 Ⅱ축 해석키워드는 공통적으로 '관계'이다. 관계되는 상대에서 일본 중·고생에게는 '버려진 개'도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 중·고생의 경우는, '친구'의 위치가 지극히 크다. 바꿔 말하면 '친구'에 한정된다. 이것은 Ⅱ축에 대해서도 일본 중·고생의 '관계지향 - 자기지향'을 한국 중·고생에게 적용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고생시대를 가깝게 되돌아볼 수 있는 한국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앞서 말한 축 데이터와 해석방법을 제시한 뒤, 그들 그녀들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 재해석하는 과정에 대해 청취조사를 행했다. 그 분석결과가 다음과 같은 축의 명칭의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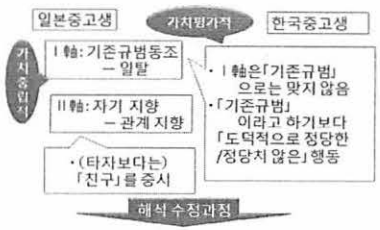
Ⅰ축) '기존규범 동조 - 일탈'(일본) ⇒ '예절, 도덕규범을 지킨다. - 지키지 않는다.'(한국)
Ⅱ축) '자기 지향 - 다른 사람 지향'(일본) ⇒ '자신의 형편 우선 - 친구의 형편 우선'(한국)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사과정에서 한국 중·고생의 규범의식의 특성과 일본과의 상호이해의 벽을 시사하는 2가지 언어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예절'과 '우리'이다.

나. '예절'과 '우리'로 보는 한·일 규범의식의 차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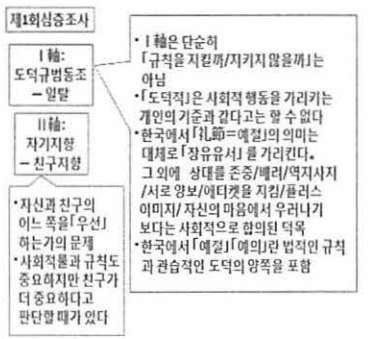
1) '예절'과 '우리'

한국 중·고생과 일본 중·고생의 설문에서 나타난 Ⅰ축과 Ⅱ축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 [그림 3]이다. '일본 중·고생들은 규칙(기존 규범)을 따른다' (동조)가 최우선의 판단 축이다. 즉, 규칙의 내용이 아니고 '규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규범(가치중립적)'이 일본 중·고생의 규범의식 중핵에 있다. 한편, 한국 중·고생의 경우 일본의 기준으로는 '도덕적으로 옳다-옳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설문이 선택되고 있다. 일본에서 '도덕'은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고, 개인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선택해야 할 기준이다. 그러나 한국 중·고생들에게는 '도덕'이 최우선해야 할 판단 축을 구성하는 위치에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규범의식의 중핵에 누구나 인정하는 일정한 가치서열에 따른 행동양식이나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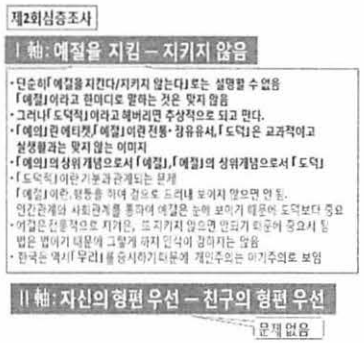


[그림 3] 한·일 중·고생의 중핵적 규범의식

이상과 같은 가설 하에 2번에 걸쳐 실시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토론과 청취조사로부터 필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말을 정리한 것이 [그림 4]와 [그림 5]이다.



[그림 4] 2개의 축과 예절의 의미



[그림 5] 예절과 도덕규범

첫 번째 조사에서 '도덕'이 화제의 중심이 되고, 누구나 지켜야 할 사회적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규범의식의 특징을 이해하는 동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언어는 '예절' 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4] 참조). '예절'에 대한 의미는 연구조원으로 참여한 일본 대학원생 야마다치카(山田知佳)에 의해서 도출되었으며, 한국에서의 '도덕' 또는 '예절'의 내용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山田知佳, 2007). 이것은 규범의식을 내재화하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중·고생과 일본 중·고생의 규범의식에서 상위점의 근원(roots)이 여기에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 한국의 『예절』이란, 일본에서 말하는 『도덕』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한국대학생으로부터 『친구가 틀려도, 무리하게 바로잡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절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친구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 학생의 의견은 특이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좋다/옳다'로 여겨지는 것과 '나쁘다/옳지 않다'로 여겨지는 것은 서로 다른 것 같다. 그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이다. 『기준』을 나타내는 말도 일본과는 의미가 다를 지도 모른다.

'예절'은 '장유유서'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대인관계에 관한 가치평가적인 '사회적으로 합의된 덕목'이다. '규칙'은 소속하는 조직이나 집단에서 공유되는 가

치중립적인 약속이다. 한국과 일본의 중·고생에게 있어서 '예절'과 '규칙'은 교사들이 잘 지키라고 되풀이 하여 강고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지만, 형성되는 규범의식의 내용은 크게 다르다. 일본에서는 소속하는 조직이나 집단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요구되고, 한국에서는 직접 대면자에 대해 전통적 가치에 근거하는 행동이나 판단이 중시된다. 그러나 예절이 모든 도덕적 세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1세기 한국 사회의 질서는 14세기에 시작되는 조선 시대에 연원을 가지는 덕목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법제도나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관습 등이 수행하는 역할은 클 것이다. 이러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5] 참조). 이 조사에서도 야마다는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규범(상식)이 다르다고 서술하였다(山田知佳, 2007).

> 일본인에 있어서 법률로 결정된 것이나 룰은 절대적이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미 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법률의 개념이 들어온 것은 메이지(明治)이후이지만, 이유야 여하튼 '법·규칙'은 그 이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서 의식 되고 있다. 한국인에 있어서도 근대적 법률은 개항 이래 구미 제국에서 들어온 개념인 것은 일본과 같지만, 그 이전의 오랜 시간과 역사를 가져 온 '예절'은 '지켜야 할 것'으로서 철저하였다. 한국에서는 법률보다 '예절'쪽이 규범으로서 상위에 존속한다고 할 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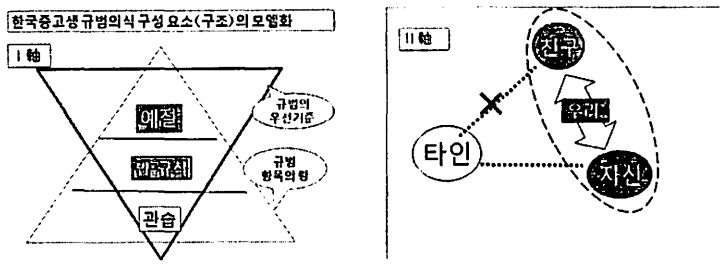
또한 한국 대학생은 '우리'를 중시하고 '우리'와 '예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 또, 한국 특유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우리'란, 부모와 자식, 형제, 친구,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등, 얼굴을 아는 범위가 좁은 관계를 가리키고,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사고방식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이외의 인물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와 '우리 이외'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다. / '우리'를 중시하는 한국에 있어서 개인의 생각을 좇아 혼자서 개별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싫어한다. 제1그룹이나 제3그룹의 인물이 개인주의로 보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이탈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와 '예절'은 밀접하게 관계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 중·고생이나 대학·대학원생의 말, 일본 대학원생의 기록과 해석으로 나타난 한국 중·고생의 규범의식에서 상위점은 '예절'과 '우리'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소개한 야마다(山田)의 기록과 해석은 전문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다소 깊이가 얕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르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사나 철학상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둔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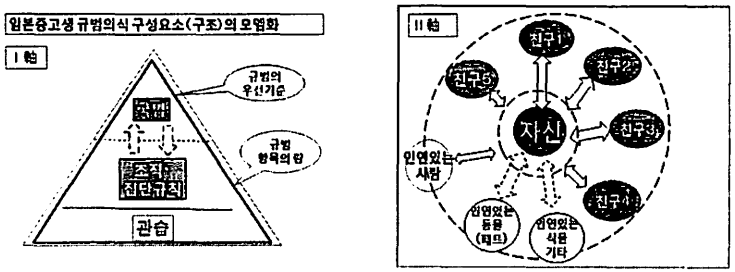
부터 얻은 결론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 중·고생의 규범의식에서 상위점을 나타낸 2개축의 모델도(図)를 작성했다([그림 6]과 [그림 7] 참조). 우선 한국 중·고생으로부터 석출한 Ⅰ축을 규정하는 규범의식은 '전통적인 예절', '현대적인 법이나 규칙', '관습으로서의 규범'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문화되는 법과 달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회화에 의해 형성되는 '예절'은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또 '예절'은 대인관계의 룰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간관계에 좌우되기 쉽다. 여기에 Ⅱ축에 보이는 '우리'가 갖는 범위의 좁음이 겹쳐짐으로써 보편적인 법보다는 가족, 친구, 자제 등의 개별적인 정이나 이해가 우선되는 인치사회(人治社会)의 부정적(-) 면에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다. 혹은 '예절'을 다하는 대상이 정치가나 지식인일 경우, '우리'의 배제 구조에 의해 정당화됨으로써 '우리'의 밖에 있는 다른 정치가나 지식인과의 대립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어 타협할 수 없게 되는 위험성도 있다.



[그림 6] 한국중·고생의 규범의식구조

[그림 7]에 나타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 중·고생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 정하는 순서로 Ⅰ축은 형성된다. 그러나 일상의 행동은 소속하는 조직·집단의 규칙을 따른다. 나라의 법은 신변에서 멀기 때문에 일상의 판단에 활용하는 지식의 패키지에 저장되기 어렵다. 그 결과 '규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규범의식의 안에 소속하는 조직이나 집단의 이해를 법률보다도 우선시키는 선택사항이 갖추어진다.



[그림 7] 일본 중·고생의 규범의식구조

또한 Ⅱ축에 보이는 동심원적인 인간관계는 대립을 막는 기능을 가지지만, 그 고리로부터 제외되는 것에 대한 필요이상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온상이 된다. 그 결과 소속 집단에 대한 충성의 강요 등이 문제시 되는 배경이 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과 일본의 모든 중·고생에게 생기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규범의식을 규정하는 2개축의 성격에 근거해 그린 모델도는 양국국민의 규범의식의 원형으로, 이것의 문제는 상호이해 교육의 과제이다. 상기 분석의 타당성은 'iii) 교원과 연구자 대상의 조사 결과 타당성 판단을 위한 청취 조사'로부터 중요하다고 판단한 관점을 소개하는 것으로 해결의 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 한일·일한 상호이해 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해결 방향

심층조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 중·고생의 규범의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 출판사 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청취조사는 장시간에 미치고 내용도 다방면에 걸쳤지만,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일·일한 상호이해를 막는 몇가지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한국의 일본 이해와 일본 비판, 일본의 한국 이해와 한국 비판'의 틀을 결정하는 제요인

먼저, 한·일 교류의 핵심인물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일본의 전후 경제발전이나 문화교류에서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과거 역사의 해석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제시하는 다양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길고, 정치가가 되기 전부터 한·일관계의 호전을 위해서 진력해 온 지식인이다. 때문에 그 발언의 의미는 무겁다. 그

러나 최근 한국에서 역사해석의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만으로는 풀리기 어렵다. 중국과의 관계도 문제시된다. 원래, 국경을 맞대는 대국과 대립점의 심각도는 일본과의 관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깊을 것이다. 한국 내에서 논쟁도 심각하다. 적어도, 한·일쌍방의 정치적 리더나 지식층의 내에서는, 첫째 서로의 입장을 상대화하는 시점, 둘째 일방적인 비난이 낳는 불모한 대립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지 등 이 2가지가 뿌리내리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한 준비 작업으로서 10년동안 해온 실증연구의 의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쌍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시각차, 그리고 한국내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호 이해와 비판의 실증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2) 혐한(嫌韓)감정과 혐일(嫌日)감정의 불합리성

최근 일본에서는 혐한(嫌韓)을 세일즈 포인트로 하는 만화가 출판되었다. 거기에 대항해서 한국에서도 혐일(嫌日)을 기치로 하는 반론 만화가 출판되었다. 한국측과 일본측을 막론하고,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 과거를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역사상의 사건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사실로서 다루는 단계부터 이야기하는 측의 평가가 들어간다. 역사적 사실은 하나라도 그 의미는 관계된 사람의 수만큼 있다. "서로의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은 이해를 막는 벽을 높게 할 뿐이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일본 번역 만화의 편집자이며, 한국 만화를 일본 만화잡지에 연재시킨 출판사 사장의 말이다.

여기에서도 물어야 할 것은 역사적 사실의 인정과 평가의 전제로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이 입장과 이해를 의도적으로 결부시키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수준에 머물면 새로운 대립을 낳을 뿐이다. 의도하지 않는 형태로 가미되는 '오해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합리성에 근거한 상호이해가 되기 어렵다.

Ⅳ. 논의 및 결론

역설적이지만 다른 문화간의 상호이해는 상대와의 유사성보다도 이질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공개하는 작업과 그것을 같은 눈의 높이로 서로 인정하는 노력이 중요해 진다. 특히 유사성과 이질성이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에 있어서는 이러한 작업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일조로서 본 연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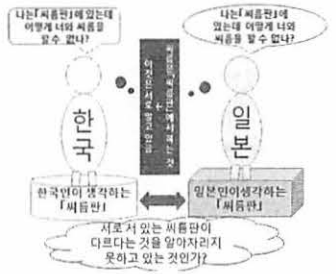
부터 '한·일 오해 구조의 일단'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	일본
① 사람이 지켜야 할 장유의 서=『예절』 VS. 관습·형식으로서의 『예의』	
② 긍정적 판단 기준으로서의 『도덕』 VS 개인의 문제로 해소되는 『도덕』	
③ 『자신』보다 『벗』과의 우선 관계 VS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등거리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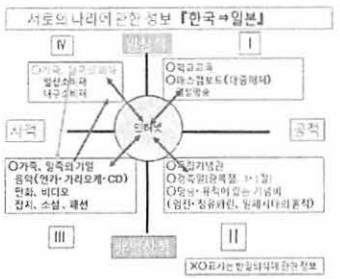
위에서 정리한 것 같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규범의식을 규정하는 기준과 평가의 쌍방에 있어서 오해를 낳는 구조가 묻혀져 있다. 한국은 '법'이나 '관습'보다도 '예절'을 중시한다.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친구'를 위해 주는 것을 우선한다. 그러나 일본은 '예절'은 형식으로 치부되고, '법'의 준수를 중시한다. '법'을 무시한 특별취급은 '친구'에게도 폐를 끼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만약에 한국의 정치적 리더가 한국의 기준에 의해 일본의 정치적 리더에게 '친구'라는 행동을 기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대로, 일본의 정치적 리더가 일본의 기준에 의해 한국의 정치적 리더에게 '친구'라는 행동을 기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양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이 담긴 특별 배려를 요구하는 한국과 법에 따르는 조건으로 밖에 응하지 않는 일본과의 사이에서 예기치 않은 대립(오해)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본 논문을 읽는 독자가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비판과 한국비판의 '판단기준의 차이'를 드러내는, 즉 한·일 상호 유사성과 이질성에 관한 정보제공과 양국의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모델' 3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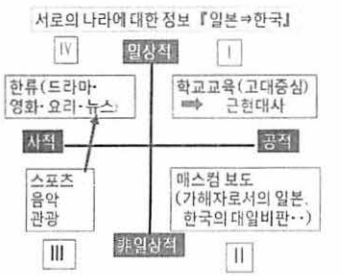
하나는 야마다(山田)가 그린 [그림 8]의 '한·일상호오해 모델'이다. 씨름은 '씨름판' 위에서 한다는 것은 서로 알고 있지만, '서 있는 씨름판이 다르다'는 것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우마이(馬居)가 작성한 [그림 9]의 '서로의 국가에 대한 정보 한국⇒일본 모델'과 [그림 10]의 '서로의 국가에 대한 정보 일본⇒한국 모델'이다. '일상적-비일상적'과 '공적-사적'의 축을 교차시켜 4개의 면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각각에서 서로의 나라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모델도이다. 양국의 비교로부터 서로의 나라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위치지워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나아가 모든 정보를 일상화하는 한국에서 인터넷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과제를 고려하는 모델도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馬居政幸・李明熙その他, 2006).



[그림 8] 한·일상호오해 모델



[그림 9] 서로의 국가에 대한 정보
한국⇒일본 모델



[그림 10] 서로의 국가에 대한 정보
일본⇒한국 모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상기의 특징 확인과 고찰을 비롯하여, 이 3가지 모델도의 의미를 읽어내는 일부터 시작될 것임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김윤정 · 장세철 (2008).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비교. 일본문화학보, 39, pp. 211~229.

양정미 (2009). 한·일 고교생의 사회적 약속에 대한 의식 비교 :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오고시나오키 (2006). 상대방 소유물 사용시의 무언행위에 대해서 : 피행위자측의 의식, 한·일 청년 조사 결과로부터. 한국어 교육, 17(2), pp. 183~198.

우마이 마사유키 (2001). 한국은 금후 일본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문화 접촉 상황을 통해 보는 수용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일본문화연구, 4, pp. 62~82.

차현경 (2004). 배려행동을 통해 본 한·일 언어의식 비교. 일본어교육연구, 7, pp. 75~91.

카마타 사토시 (2008).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역사교육연구의 새로운 경향 : 한·일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7, pp. 187~213 .

'한·일, 연대21' · 한국국제교류재단 (2005). 한·일, 상호이해를 가로막는 요인들 : 그 정치적 무의식의 구조. 서울 : 한·일, 연대21.

馬居政幸 · 李明熙その他 (2006). 韓国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調査研究 (9) : 日本文化開放後における中高生の日本批判の特徴. 靜岡大學教育學部研究報(人文 · 社會科學篇), 56.

馬居政幸 (2005). 日韓相互理解教育の新たな課題 : 韓国青少年への継続調査を手がかりに. 谷川彰英編(日韓交流授業と社會科教育) (pp. 285~290). 東京 : 明石書店.

馬居政幸 他 (2003). 青少年に関する調査研究. 靜岡大學教育學部研究報(教科教育學篇), 34.

山田知佳 (2007). 韓国青少年の規範意識に関する実証的研究 : 中高大学生を対象とした量的 · 質的調査を通して. 静岡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修士論文.

抄 録

韓國中高生の規範意識の特徴と韓・日相互理解教育の課題

馬居政幸・李 明熙
(靜岡大學校・公州大學校)

本研究は、韓国中高校生の規範意識と日本中高校生に現れる規範意識の特徴と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韓日両国の相互理解教育のための、新しい方向を提示しようとする。このために、韓国中高校生2,905名を対象とした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て、多変量解釈技法(対応一致分析)を活用、2種類の軸(Ⅰ軸とⅡ軸)と傾向が類似な9つのグループを区分して、規範意識の構造を把握した。 また、韓国中高生の規範意識についての調査結果を導き出すことにおいて、解釈モデルが"日本中高校生と同一視する'という偏見を最小化するために、次のような三つの階層を対象とした深層調査(集団討論及び聴取調査)を実施した。 このようなプロセスを通じて、規範意識についての結果を再解釈することができた。

深層調査は、ⅰ)韓国中高校生を対象とした9つの典型的なグループを再解釈するために、ⅱ)韓国大学 · 大学院生を対象とした2つの軸について再解釈するために、ⅲ)教員と研究者を対象として、ⅰ)とⅱ)についての妥当性を検討するために施行された。ⅰ)の調査と分析を通じて、各9つのグループと関連する特徴を、顔イラストで表現して、再解釈することができた。韓国と日本の相互理解を防ぐ規範意識は、ⅱ)の調査と分析を通じて提示された。相互の間、最も大きい概念の差を現わす言葉は、'礼儀'と'我々 (우리) 'とあらわれた。最後のⅲ)の調査と分析では、韓日両国間の、根が深い悪感情は、互いに違う文化から始った'誤解の構造'であることを発見した。そして、これを克服するためには、文化の類似性と異質性に関する情報提供と相互理解のための教育が必要であると提案した。

主題語 : 規範意識, 相互理解教育, 多変量解釈, 対応一致分析, 深層調査

참 고 문 헌

김윤정 · 장세철 (2008).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비교. 일본문화학보, 39, pp. 211~229.

양정미 (2009). 한·일 고교생의 사회적 약속에 대한 의식 비교 :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오고시나오키 (2006). 상대방 소유물 사용시의 무언행위에 대해서 : 피행위자측의 의식, 한·일 청년 조사 결과로부터. 한국어 교육, 17(2), pp. 183~198.

우마이 마사유키 (2001). 한국은 금후 일본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한국 청소년의 일본 대중문화 접촉 상황을 통해 보는 수용논의의 문제성과 과제. 일본문화연구, 4, pp. 62~82.

차현경 (2004). 배려행동을 통해 본 한·일 언어의식 비교. 일본어교육연구, 7, pp. 75~91.

카마타 사토시 (2008).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역사교육연구의 새로운 경향 : 한·일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7, pp. 187~213 .

'한·일, 연대21' · 한국국제교류재단 (2005). 한·일, 상호이해를 가로막는 요인들 : 그 정치적 무의식의 구조. 서울 : 한·일, 연대21.

馬居政幸 · 李明熙その他 (2006). 韓国における日本大衆文化の調査研究 (9) : 日本文化開放後における中高生の日本批判の特徴. 静岡大學教育學部研究報(人文 · 社會科學篇), 56.

馬居政幸 (2005). 日韓相互理解教育の新たな課題 : 韓国青少年への継続調査を手がかりに. 谷川彰英編(日韓交流授業と社會科教育) (pp. 285~290). 東京 : 明石書店.

馬居政幸 他 (2003). 青少年に関する調査研究. 静岡大學教育學部研究報(教科教育學篇), 34.

山田知佳 (2007). 韓国青少年の規範意識に関する実証的研究 : 中高大学生を対象とした量的 · 質的調査を通して. 静岡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修士論文.

抄 録

韓國中高生の規範意識の特徴と韓・日相互理解教育の課題

馬居政幸・李 明熙
(靜岡大學校・公州大學校)

本研究は、韓国中高校生の規範意識と日本中高校生に現れる規範意識の特徴と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韓日両国の相互理解教育のための、新しい方向を提示しようとする。このために、韓国中高校生2,905名を対象とした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て、多変量解釈技法(対応一致分析)を活用、2種類の軸(Ⅰ軸とⅡ軸)と傾向が類似な9つのグループを区分して、規範意識の構造を把握した。 また、韓国中高生の規範意識についての調査結果を導き出すことにおいて、解釈モデルが"日本中高校生と同一視する'という偏見を最小化するために、次のような三つの階層を対象とした深層調査(集団討論及び聴取調査)を実施した。 このようなプロセスを通じて、規範意識についての結果を再解釈することができた。

深層調査は、ⅰ)韓国中高校生を対象とした9つの典型的なグループを再解釈するために、ⅱ)韓国大学 · 大学院生を対象とした2つの軸について再解釈するために、ⅲ)教員と研究者を対象として、ⅰ)とⅱ)についての妥当性を検討するために施行された。ⅰ)の調査と分析を通じて、各9つのグループと関連する特徴を、顔イラストで表現して、再解釈することができた。韓国と日本の相互理解を防ぐ規範意識は、ⅱ)の調査と分析を通じて提示された。相互の間、最も大きい概念の差を現わす言葉は、'礼儀'と'我々 (우리) 'とあらわれた。最後のⅲ)の調査と分析では、韓日両国間の、根が深い悪感情は、互いに違う文化から始った'誤解の構造'であることを発見した。そして、これを克服するためには、文化の類似性と異質性に関する情報提供と相互理解のための教育が必要であると提案した。

主題語 : 規範意識, 相互理解教育, 多変量解釈, 対応一致分析, 深層調査